

다. 故人은 새로 陳列될 때마다 筆者를 同伴 參觀하며 李垠氏의 말없는 壯學에 깊은 感銘을 받고 또 많은 敬意를 表했던 것이다.

이와같이하여 故人的 古美術品 蒐集은 一九二九年二十四歲에 日本留學을 마치고 歸國한 후부터 活潑하게 始作되었으며 書籍을 通해 研究하며 交換會 등에 直接 나가보며 故葦滄 吳世昌先生과 指導를 받으며 서울 釜山 東京等地에 있는 著名한 骨董商(日人 包舍)과 緊密한 連絡을 取하는 韓 寬勳洞에 翰南書林을 後援 經營케 하는 등 徹底하고 緻密한 方法으로 逸品을 蒐集하기 始作하였던 것이다. 뛰어난 物件이 나오기만 하면 價格의 高下나 所在의 遠近이 問題가 되지 않았다. 國內의 京鄕을 가리지 않았고 國外에까지도 찾아다녔던 것이다. 또 當時 우리側의 著名한 收藏家 張澤相 宋성준 閔奎植 其他 諸氏와 連絡하여 우리 文化財가 日人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牽制하기에 苦心하다가도 間或 어쩔 수 없이 빼앗기는 境遇 그 慨歎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當時 日人側으로는 殖銀頭 取京 電社長 등이 強敵이었던 듯하다. 勿論 앉아서 장만한 것도 많지만 安東까지 사람을 보내서 秘密裡에 訓民正音 原本을 求得해온 것이라든지 日本으로 실리기 直前에 入手한 新羅時代 五層舍利塔이며 金海에서 燕子樓 遺物을 (蓋瓦며 礎石까지) 몇 貨車에 실어온 것이며 日本까지 찾아가 英人 收藏家 카스피翁과 長時日을 두고 승강이를 한 끝에 『점은 이도 自己나라 古美術品을 이다지 애써 찾으려고 하니 참 놀라운 愛國者』라는 讚辭와 함께 國寶 數點을 讓與받은 것이라든지 모두 八・一五前의 일로 鐵石같은 信念과 犧牲精神이 없는 到底히 될 수 없는 일이라 하겠다.

한편 蒐集品の 保存과 陳列을 爲하여 城北洞別邸에 個人博物館 葆華閣을 建立하였으나 八・一五以前에는 秘藏하고 一切 公開하지 않았으며 오직 普成中學校 卒業班 學生들에게만 故高裕燮先生의 解說附로 參觀케 하여 뛰어난 우리 古文化財에 對한 認識과 아울러 民族意識을 깨우쳐 주기에 힘썼던 것이다.

八・一五解放을 맞아 關係方面 人士에게 公開하는 한편 蒐集을 如前繼續하여 漢籍을 數千卷이나 購入하는 등 힘에 겨운 일도 서슴치 않았으며 더더우기 事變後로는 形便이 前과 같지 않은 데도 不拘하고 끝까지 손

을 떼지 아니 하였음은 實로 놀랄울 따름이다.

이 貴重한 收藏品 때문에 겪은 事變中의 蕉燥며 避難時의 苦心은 到底히 筆舌로 다할 수 없으며 確實한 過重의 犧牲이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 분은 이 일을 爲해서 이 世上에 태어났던 것 같기도 하다. 近者에 文化財保存委員會 考古 美術同人 등에 關係한 後 그 識見이 더욱 圓熟해져서 앞으로의 業績이 크게 期待되던 차 忽然 他界하셨으니 哀惜하기 이를 데 없다.

부디 國寶를 爲始해서 珠玉같은 故人的 收藏品이 고이 간직되어 길이 이 나라 이 겨레의 자랑이 되므로써 在天의 靈魂에게 기쁨이 되기를 빌 따름이다. 一九六二・三・一五

### 潤松先生 靈前

崔 淳 雨

—— 서울은 그동안 제법 따뜻하더니 昨日부터 露下四、五度로 氣溫이 下降하여 今谷이 再昨年에 심어놓은 碧梧桐(그 동안 길길이 자랐읍니다)도 얼지말라고 짐으로 싸주었읍니다——

이것은 先生께서 지난 十二月 저의 巴里旅寓로 보내주신 마지막 글월의 귀절입니다. 梅峴書屋을 찾을 때면 그 東窓 문틈 위에 걸려 있는 阮堂先生의 「碧梧桐館」이라는 아담한 小額을 늘 버릇처럼 쳐다보곤 하면서 窓가에 정말 碧梧桐한 그루가 있었다면 하고 생각하였던 것이 어느 해 이른봄날 정말 굵직한 벼오동 몇 그루가 入手되어서 그 중 두어 그루를 그들에 심어드린 것입니다. 어쩌다가 선생께서는 이 梧桐나무 이야기를——이제는 마즈막이 된 글월속에 남겨 주신 것입니까! 지금 허전한 들에서 감싸주신 집너울이 누구의 손으로 비껴지기만 기다릴이 오동나무 이야기까지 이제 생각하면 그때 이미 저에게 주신 무슨 신비로운 啓示였던 것만 같아서 저는 이제 눈물을 삼킵니다.

생각하면 지난 一月下旬

그리운 서울의 하늘 밑에서는 선생께서 幽明의 가름길을 헤메이고 계실 때 저는 그도 모르고 노르만키니 뿌르다뉴이니 보르도니 하는 西南佛地方의 先史遺蹟地를 巡遊하고 있었읍니다. 요사이 蕉雨兄이 보내 준 글월을 보오니 先生께서 病院에서 임으신 이승 마지막 편지가 바로 이 旅行에서 드린 저의 글월이었다고요 그리고 카르낙 先史遺蹟地에서 라스코의 洞窟에서 喜喜樂樂해서 적어 보내드린 저의 그림 葉書들은 先生께서 棄世하신 후 靈前에 올려져 있더라고요 저는 그도 모르고 잠시 여가 여가에 카르낙에서 그리고 라스코에서 선생께 보여드릴 잠생긴 피석들을 주으면서 마음이 즐거웠읍니다. 실상 저는 선생께 드릴 다른 아무것도 갖인 것이 없읍니다. 가사 서리찬 한 밤내 밤새워 새기셨다는 저의 雅印들, 그 어느 것 하나만에 담어 주신 情愛에 만이라도 더구나 碧梧桐을 감싸주시듯 항상 감싸주시던 따뜻한 훈기에도 보람을 드릴만한 일을 저는 지닌 것이 아무것도 없읍니다. 몇해전 제가 나야가라에 들렀을 때 잠생긴 水磨石들을 주어 갖고 고국에 돌아간 일이 있었읍니다. 그때 선생께서는 무엇보다도 이 돌들을 즐겨하시고 저에게는 단 하나도 않남겨 놓으실만큼 이 돌들을 탐내주셨읍니다. 저는 그것이 기뻐했읍니다. 무엇보다도 돌을 반가워해주는 그 心境에 저의 마음은 보람을 느꼈읍니다.

저에게는 정말 돌따위 밖에는 이제도 先生께 보여드릴 아무것도 지닌 것이 없는 줄 스스로 압니다. 말하자면 주체스럽기만한 돌들을 스콧드랜드의 북쪽 끝에서도 서쪽 불란서의 언덕길에서도 즐겨 주면서 그때마다 오고가는 선생과의 對話가 있어서 제 단엔 늘 흥겨웠읍니다.

그 때 이미 선생께서는 이 세상에 안계신 것을 저는 그도 미처 모르고 이 무거운 돌들을 앓고 巴里로 돌아온 것입니다. 말이 없는 이 차디찬 돌들을 가슴에 앓고 저는 이제 어느 자리로 나가 앓을까요. 누구와 이 쌓이고 쌓인 긴 이야기들을 나누어야 할까요. 생전에 무엇으로나 드릴 것이 없었던 저는 이제 도이 묵묵하고 잠생긴 돌들이나 앓고 마음껏 울어드릴 밖에는 다른 것으로 이 큰 슬픔을 풀어 드릴 길조차 오늘날도 저에게는 아

무것도 지닌 것이 없읍니다.

一九六二・三・一三 未明에 프랑크프르트市에서 拜泣

### 아버님 靈前에

全 暎 雨

오늘도 먼지 속에 묻혀 아버님의 너무도 생생한 손길을 더듬으며 하루 해가 갑니다. 보양계 먼지 덮힌 하나하나에 가버리신 아버님의 내음을 맡을 수 있었읍니다. 먼지에 겨슬린 梧桐의 크고 작은 箱子들에게서 무르고 고운 面面에 無數한 傷痕을 찾아 봅니다. 너무나 무릎에 너무나 곱기에 그 많은 傷處를 입었기에 그 속의 하나의 티없이 푸른 先人의 마음을 용케 다치지 않고 살았읍니다. 허나 이 梧桐 箱子와 같이 험한 길을 헤메다니며 시달리던 主人은 滿身瘡痍의 傷痕을 몸에 지니고 곱게 가셨읍니다. 心中의 티 없이 傷하지 않은 얼을 잔지 하신 채……

梧桐 箱子의 두정을 가만히 열고 늦은 밤이면 가득히 蠶을 채우시고 뭍지도 흐뭇해 하시던 象嵌의 곱디고운 靑磁의 蠶를 가만히 어루 만져 봅니다. 靑色이 종이처럼 얇고 溫和한 形態 그러나 감히 犯치 못할 強靱함에 몸을 다시 한번 가다듬어 봅니다. 單純한 듯 하면서도 묘하게 다가가는 線속에서 은근히 풍기는 멋과 흥을 맛 봅니다. 秘色이라 일컬었던 옛 사람의 表現에 그 率直性을 認定치 않을 수 없읍니다. 조출한 그 러나 뒤에 숨겨진 찬란한 色感에 象嵌으로 가날뜨게 이어져나간 白土의 폭 파문린 唐草紋의 連續 위에 너무나 맑은 가신 아버님을 느껴 봅니다. 아버님의 입김이 또 손길이 미치지 못한 채 해가 바뀌도록 버림받은 이 蠶가득히 아버님의 體溫을 담아 봅니다. 자랑을 모르는 이 조그마한 象嵌의 푸른 高麗의 蠶! 謙遜의 도타운 釉藥의 表膜을 뚫고 새어나오는 燦然한 光彩에 다시 한번 가버리신 아버님의 모습을 또 이 蠶에 술을 채우시고 마즈막으로 談笑하셨을 여러 先生任들의 모습을 되새겨 볼